

두산, KIA꺾고 시범경기 4연승

프로야구 홈경기서 7-2 승
올해도 가을야구 진출 도전

한화, KT꺾고 6-4로 이겨
시범경기 3승째 달려

두산 베어스가 KIA 타이거즈를 제압하고 파죽의 4연승을 달렸다. 두산은 1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KBO리그 시범경기' KIA와의 홈경기에서 13안타를 때려낸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7-2로 완승을 거뒀다. 시범경기에서 4전 전승을 올린 두산은 올해도 '가을야구' 진출에 도전한다. 두산 선발 객빈(1%이닝 2볼넷 무실점)과 박신지(1%이닝 무안타 무실점), 이병현(이닝 1피안타 무실점) 등 투수진은 무난한 호투를 선보였다. 김재환은 1회말 결승 2루타를 터뜨리는 등 3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고, 리드오프 정수빈은 3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 1도루로 맹타를 휘둘렀다. 시범경기서 2연패를 당한 KIA는 3패(2승)를 기록했다. KIA 외국인 선발 제임스 네일은 3%이닝 8피안타 1볼넷 4탈삼진 6실점으로 패전의 멍에를 썼다. 시범경기 평균자책점이 10.13으로 치솟았다. 두산은 1회말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선두타자 정수빈의 안타와 도루로 2사 2루 찬스를 잡은 후 김재환의 우중간

에 떨어지는 2루타로 1점을 뽑았다. 1-0의 리드를 이어가던 두산은 4회 집중력을 발휘했다. 김재환의 안타와 양석환의 2루타로 무사 2, 3루 기회를 만든 후 김승호의 2타점 중전안타로 점수 차를 벌였다. 이어 허경민과 박계범의 안타로 1사 만루 기회를 잡았다. 두산은 계속된 공격에서 바뀐 투수 김대유를 상대로 정수빈의 2타점 2루타와 헨리 라모스의 2타점 2루타가 터지면서 7-0으로 달아났다. 반격에 나선 KIA는 6회초 박찬호의 볼넷과 도루에 이은 박민희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6회까지 2안타를 치는데 그쳤던 KIA는 7회 최형우의 볼넷과 서건창의 2루타로 1사 2, 3루 찬스를 만들었다. 곧바로 이창진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 뽑았다. 두산은 4회 이후 추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박정수와 김명신, 최종인, 박지국, 정철원 등 볼넷진을 활용해 리드를 지켰다. KIA는 9회까지 3안타의 빈공에 그쳐 무릎을 꿇었다. 두산은 오는 15일 오후 1시 잠실구장에서 KIA와 재대결한다. 한화 이글스는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진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6-4로 이겼다. 2연승을 내달린 한화는 시범경기 3승째(2패)를 거뒀다. 2연승에 실패한 KT는 2승 3패가 됐다. 한화 5선발 후보 김민우가 선발 등판해 3%이닝 4피안타(1피홈런) 1사사구 4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볼넷진

은 5%이닝 1실점 호투를 합작했다. 한화 타선은 이도운, 조한민의 활약을 내세워 작재적소에 점수를 뽑아냈다. 이도운이 7회 결승타를 작렬했고, 조한민은 2타점을 지원했다. KT 선발 투수 웨스 벤자민은 3%이닝 3피안타 1사사구 2탈삼진 1실점의 성적을 냈다. 이날 양 팀을 통틀어 유일하게 대포를 쏘았던 KT 황재균은 3타수 1안타 1홈런 2타점으로 패조의 타격감을 선보였다. 3회까지 한화와 한 점씩을 주고 받은 KT는 4회 리드를 잡았다. 4회초 박병호가 중전 안타로 출루한 뒤 황재균이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을 쏘아냈다. 끌려가던 한화는 5회말에 판을 뒤집었다. 이진영의 우전 안타, 최재훈의 몸에 맞는 공 등으로 만든 1사 1, 3루에서 요나단 페라지의 3루수 땅볼로 쫓아가는 점수를 뽑았다. 이어 안치홍의 볼넷으로 득점권에 주자가 위치했고, 조한민이 역전 2타점 2루타를 터뜨렸다. KT는 6회초 벨 로하스 주니어의 2루타, 투수 한승주의 폭투로 일군 1사 3루에서 강박호의 1타점 땅볼로 4-4 동률을 이뤘다. 그러나 한화 타선이 재차 매서운 공격력을 발휘했다. 7회말 김강민의 우전 안타, 조한민의 몸에 맞는 공으로 기회를 창출했고 이도운이 결승타를 때려냈다. 1사 1, 3루에서는 임종찬이 승기를 잡는 희생플라이 타점을 생산했다. /뉴스

진안군청 역도부, 전국대회 '맹활약'

김정민, 금메달 2개 획득
유동주 이어 우수 성적 거둬



진안군청 역도부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경남 고성군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전국실업역도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김정민(남자 73kg) 선수가 금메달 2개(용상 1위, 합계 1위)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정민 선수는 2005년생으로 올해 초 경기도 안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 후진안군청 역도부에 입단한 선수로 고교 시절 각종 전국대회에 입상하며 유망주로 주목을 받아왔다. 진안군청 역도부 입단 후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들어 올리며, 앞으로도 진안군청 역도부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이로써 진안군청 역도부는 지난날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2024 아시아선수권대회 유동주 선수에 이어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도 김정민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경남 고성군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전국실업역도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진안군청 역도부 김정민 선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로써 진안 역도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평소 진안홍삼한방플러스 터사업단의 후원으로 진안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과 체력관리를 함으로써 진안홍삼 홍보에도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진춘성 진안군수는 "올 초부터 국

제대회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역도부 선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만큼 부상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16~17일 고창서 '교육감배 태권도 대회'

총 530여명 선수 참여

고창군이 오는 16~17일 이틀간 군립체육관에서 '제44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 협회가 주관하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총 약 530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각 부별로 토너먼트 겨루기 형식으로 박진감 넘치는 시합

이 펼쳐질 예정이다. 대회의 1위 입상자는 초등부와 중등부의 경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태권도대표 최종선발전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고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전북태권도대표 최종선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고창군은 지난해 4월 '제31회 청두겨루기 형식으로 박진감 넘치는 시합

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를 열었다. 또 6월에는 '제35회 전북도지사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내 태권도 보급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4월에는 고창고인돌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된다. 앞으로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석 기자



정강선 전북체육회장과 홍성식 바르셀로나올림픽 동메달리스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서 열린 '전북체육 소장품 기증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적토마 복서, 전북체육역사기념관 조성 동참

'바르셀로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홍성식 체육 영웅
올림픽서 착용했던 가운 등 소장품 전북체육회에 전달
"체육 정책 원활... 전북체육 한 단계 더 발전되길 바라"

복싱 전설인 오스카 델라 호야와 일전을 펼쳤던 체육 영웅이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값진 체육 소장품을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기증했다. 주인공은 바로 선수 시절 강철 체력으로 적토마라 불리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복싱 라이트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홍성식 현 고창 영선고등학교 교사이다. 14일 홍성식 체육 영웅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착용했던 가운과 동메달, 세계군인선수권대회(1992) 금메달, 대회 당시 착용했던 마우스피스 등의 소장품을 도 체육회에 전달했다. 이에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체육 소장품을 흔쾌히 기증해준 홍성식 영웅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기증증서를 전달했다. 고창이 고향인 홍성식은 다른 선수들보다 비교적 늦은 고등학교 1학년때 복싱에 입문했고, 태극마크를 달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했다. 결승전 문턱인 4강전에서 미국의 오스카 델라 호야를 만나, 일전을 쳤고

경기를 지배했지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10대11로 석패, 동메달을 획득했다. 당시 홍성식 영웅을 상대로 어렵게 승리를 거둔 뒤 금메달을 획득한 델라 호야는 프로로 전향한 뒤 슈퍼페더급과 라이트급, 라이트 웰터급, 웰터급, 라이트 미들급, 미들급 등 무려 6체급을 석권하며 골든보이라는 명칭과 함께 20세기 복싱 최고의 스타로 군림한 복싱 전설이다. 훗날 델라 호야는 자서전을 통해 '홍성식과의 경기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몇 경기 중 하나'라고 회고했다. 이처럼 전 세계에 한국의 주먹이 매서움을 알렸던 홍성식 영웅은 세계군인선수권대회 금메달, 제1회 동아시아 대회 금메달을 획득했고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화려했던 선수생활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링이 아닌 교단에서 학

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날 기증식에서 홍성식 영웅은 "전북체육역사기념관 조성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역사기념관을 비롯해 전북체육회 체육 영웅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체육 정책이 원활하게 이뤄져 전북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제 기억에 당시 홍성식 영웅은 경기를 지배하고도 패배했는데 이는 개인이 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졌다고 생각한다"며 "금메달보다도 더 값진 동메달을 기증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유인택(레슬링), 신준섭(복싱), 임미경(핸드볼), 정소영(배드민턴) 등 올림픽 영웅을 비롯해 원로 체육인, 프로 선수 등의 체육 소장품 기증 릴레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400점의 소장품을 확보한 상태다. /뉴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그라운드 서학 2024

GROUND SEOHAK

김누리 이주원
손은영 박미정 박재연
조진규 김시오 노미정

INVITATION EXHIBIT

2024. 3. 21 ~ 4. 10

Sëohak 서학아트스페이스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7

아트갤러리 전주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 (전주아트센터)

AP 9 / 콘스트서학